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드리는

12 월 선교편지

DEC 8, 2016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나라 (롬 5:8)

##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2016년 마지막 선교편지를 보내 드립니다. 2016년 한해 동안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네시아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 1. 숨바섬 현지 사역자 4분에게 오토바이 전달을 하였습니다.

금번 숨바섬 사역 중 첫째날 숨바섬에서 허브역할을 하시는 아놀드 목사님 교회에서 숨바산속 현지 사역자 4분에게 오토바이 증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7월에 숨바섬을 다녀간 한 청년이 한국에 돌아가서 숨바섬 현지 사역자분들의 열정과 생활모습들을 본인이 있는 소그룹 청년들에게 전했는데 그 청년들이 뜻을 모아 휴가비용, 신혼여행비용, 적금등을 모아 오토바이 4대를 기증해 주어 현지사역자 12분 중 먼저 4분을 선정하여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오토바이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영영 우시는 모습에 저희 모두의 가슴이 벅차올랐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분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8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때에 또 공급되어지리라 믿으며, 정말 숨바 산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배고픔과 질병과 빈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이 분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2. 숨바섬 12번째 건축된 교회 헌당예배를 드렸으며, 11번째 / 13번째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숨바섬에 12번째로 건축한 Bukit Zaitun (감람산) 교회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숨바산속 waiunga 마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마을 주님들을 초청해서 첫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의자도 없어 타일바닥에 앉았고, 강대상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런 시설들은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계시어 정말 눈물의 헌당예배를 드리고 모든 선교팀들과 함께 뜨겁게 뜨겁게 기도 드렸습니다. 이제 Bukit Zaitun 교회를 통하여 Waiunga 마을 주민들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필요한 의자들도 후원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숨바섬에 11번째 교회와 13번째 교회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11번째 교회는 Melolo 마을에 8m×16m 크기로 건축중인데 재정 부족으로 4개월째 더이상 진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12번째 교회는 완공시켜 금번 숨바방문시 헌당예배를 드렸는데 11번째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어 가슴이 많이 아프지만 또 주님께서 새로운 후원자들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교회는 Matawai Amah 마을에 7m×15m 크기로 건축을 시작하였고 이 교회도 처음 계획했던것 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게 되어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교회가 전혀 없는 2곳마을에 처음으로 건축되고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되어, 온 마을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3. 숨바섬 산속 마을 초등학교에 대형 물탱크를 기증하였습니다.

숨바섬 산속마을에 있는 Bidiwai 초등학교에 한국 오츠카 회사 후원으로 4m×6m×3m 크기의 대형 물저장탱크를 만들어 증정식을 하였습니다. 이 물탱크로 초등학생 100여명과 교사 15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 및 생활용수가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모든 교사들과 어린학생들이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번에 숨바산속 어린 영혼들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물 공급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게 되어 더욱 감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뿌려진 씨앗들 가운데 주님께서 싹이 나도록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 4. 숨바섬 산속 마을 4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세트 전달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숨바섬 사역 중 숨바산속 4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아대책에서 후원해 준 학용품세트들을 약 600여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원래는 6개 초등학교를 방문하고자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산속마을 길이 붕괴되어 더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2개 초등학교는 다음 기회로 연기하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말씀을 통해 영접기도들을 하고 학용품세트들을 받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그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가슴들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숨바산속 마을 어린영혼들이 비록 현재의 삶이 매우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5. 호주 호산나 교회 선교팀 20명과 함께 8일간 숨바섬 18 마을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지난 9일간 호산나 선교팀들과 함께 숨바섬 14개 마을과 4개 초등학교, 모두 18 곳을 방문하여, 모든 마을 영혼들과 초등학생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중국인, 홍콩인, 호주인이 함께 섞여있는 팀이었음에도 정말 훈련이 잘 되어있는 청년들이었으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사역을 하여 매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스스로 일어나 새벽기도를 하는 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산속마을들에서 씻지도 못하고, 침낭에서 자고, 산을 걸어올라가고, 냇가도 건너가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야외예배도 드리면서, 각 마을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과 희락을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 6. 말랑 UKCW 기독교종합대학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수라바야 교육청에서 말랑 UKCW 대학을 방문하여 모든 서류 및 학과과정을 조사하고 모든

것이 인도네시아 교육청 사항들과 종합대학 자격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을 발권해 주었습니다. 다시한번 인도네시아 교육청으로 부터 모든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드릴뿐입니다. 다만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장소를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1주간 휴교를 하고 이전을 한 후에 다시 학과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하루속히 대학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 마련을 위한 재정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7. 자카르타 한센인 마을 사역과 한센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마르디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무 가족이 없어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장례를 못치루고 있기에. 장례비용만 급하게 보내주고 빨리 진행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혼자 한센인 마을에 버려져서 18년을 혼자 멀리서와 냉대 가운데 사신 마르디아 할머니,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기는 2주전 방문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셨기에 이제 주님의 품에서 더이상 고통없이 지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2016년에 한센인 마을에 계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됨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20일에 이들과 함께 성탄예배를 드리고 성탄선물과 의족 5개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복음학교 순회선교단 비전트립팀의 일정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복음학교 순회선교단 비전트립팀들과 함께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자카르타, 말랑, 숨바섬에서 사역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과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월 두달간 연이어 5개의 선교팀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모든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하고,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섬기시는 귀한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6년 12월 8일

인도네시아에서 함 춘 환, 김 성 혜 드림